



인쇄인 최초 중구상공회회장 김정전 대화유씨피 사장

## “각종 단체와 협력해 인쇄인 위상 제고 노력”

김정전 대화유씨피 사장이 5대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장에 피선, 지난 3월 21일 호텔 아카시아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중구상공회는 서울상공회의소와 중구청이 손을 잡고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1월 26일 창립, 현재 8000여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인쇄인으로서 처음으로 중구상공회장에 선임된 김정전 사장은 향후 중구 내 많은 단체들과 협력, 중구상공인 특히 인쇄인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1. 김정전 사장이 중구상공회 5대 회장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2. 김정전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민관 협력증진·체계적 경영활동 지원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서울상공회의소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하며, 지역 상공인이 명실상부하게 경제인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터키, 크로아티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지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지역 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중구상공회는 상공회의소법 및 서울시 구별 상공회 설립 지침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신기술·경영기법 공유체제 구축, 상공인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 촉진, 민관 협력증진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전개,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있다.

### 수석부회장 풍부한 경험 인정받아

김정전 중구상공회 회장은 취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구상공회는 이전에는 남대문 상인과 동대문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처럼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도 당연히 남대문 상인 대표와 동대문 상인 대표가 번갈아가며 맡았다. 물론 회원사도 이 지역이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중구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인쇄인의 참여율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여건 하에서 김정전 사장이 5대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중구상공회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성실함을 알렸고, 오랜 기간 수석부회장을 맡아온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회장으로 선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구상공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위상 제고 위해 인쇄인 가입 증대 노력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향후 중구상공회에서 인쇄인의 영향력을 확

대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쇄인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쇄인들이 중구상공회에 더 많이 가입해 인쇄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7~8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제로 힘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100개사를 목표로 가입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인쇄인들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구상공인 단체의 대표로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일해야겠지만, 나도 인쇄업을 영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쇄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울인쇄조합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필동 재개발, 인쇄단지 조성 등의 문제는 서울인쇄조합과 상공회가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주변에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협력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7대 과제 중심 중구상공회 운영 계획

김 회장은 중구상공회 운영 계획에 대해 “그동안 역대 고문과 전임 회장들이 이룩한 업적과 상공회 정신을 이어받아 명예로운 중구상공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창식 중구청장과 유대 강화로 발전 도모 ▲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중구 소재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회원 상호간의 폭넓은 교류증진과 친목을 강화하며, 특히 CEO 독서아카데미를 계승 발전(현재 8기 배출)시켜 향후 100기까지의 터전 마련 ▲관광특구(명동관광특구,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관광특구)의 외국인 왕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CEO독서아카데미에 외국어과 확대 실시 ▲지방 상공회와 결연을 통해 상호 특산품 교류 및 인적 교류 강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및 세운공구상가, 인쇄조합 및 중부시장 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상공회 외연 확대 ▲개인 자영업자들의 세무회계 및 종업원 구직난 해소를 위해 중구상공회 내에 무료상담부서 설립 등의 공약을 중심으로 중구상공회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